

민주당 '탈당 러시' 현실화...박영순 의원 탈당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 선언, 이낙연 전 대표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 선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탈당을 선언한 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세 번째 현역 의원의 탈당이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탈린다는 듯 한 태도로 공천이 아닌 맘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더 이상의 기대는 어

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민주당은 이해명 대표 1인 지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하고 방탄과 사욕을 위한 전제주의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지"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살아숨 쉬는 진정한 민주 정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층을 도와 당내에서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앞서 박 의원은 원희백 공관위 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은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에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폐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당 공관위는 지난 25일 대전 대덕 지역구에서 박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박정현 최고위원 간 경선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임 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포함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탈당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을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2인 경선을 발표하는 등 제3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도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에 반발하고 있는 이상현 의원이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진보당 의원과의 경선을 통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지만 출마 의사와 밝힌 설문 의원은 전날(26일) 한 라디오에 나와 "하위 10%에 들어" 30%를 감사하고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선을 통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조례 제정 추진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 도의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의정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 교육정책 현황,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하며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태안 기업도시가 최적지"

진태구 위원장, 윤 대통령과 성일종 의원에게 태안 유치에 힘 실어줄 것 주문



태안군민들로 구성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태안군 유치 추진위원회 진태구(전 태안군수) 위원장이 27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 위원장은 민·군 상생하는 항공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리듬과 연구에 신편성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갖게 되는 지역이 곧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로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국방부·민생부·문화부·도체부·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극장·

국립현대미술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 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

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 SK렌터카, 당진시와 투자협약 체결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등의 인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 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범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 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군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 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흥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

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운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정정●

퇴임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김지철 충남
도 교육감 =
28일 오전 10
시 30분 충남
교육청 대강
당에서 열리
는 2월말 퇴임 교원 정부포상전
수식에 참석.

1분기 정기회의



최재구 예산군
수 = 28일 오
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
평통 예산군
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

예산군 대술면 취약계층 대상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 교육

예산군 대술면은 지난 26일 농식품
바우처 사업 수혜 대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 생
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
워크에서 주관했으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 이해 및 신선 농산물 섭취 등 균
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또한 대술면은 3월부터 본격 이용이
가능한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일에
맞춰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접종 신청 기간을 운영 중
이며, 흥보를 통해 누락 없이 바우처 카
드 등록을 마친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농림 죽
산 식품부 공모를 통해 예산군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하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
층)에 농식품(10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방
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기준 4만
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4인 가구 8만원 등이다.

예산=박제화 기자

충남도 민방위강사 위촉식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민방위 교육을 책임질 민방위 강
사 40명(기본소양 강사 18명, 실전훈련
강사 22명)을 위촉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민방위 강
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교육, 운영
계획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준 높은 민방위 강사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강사 선발 주체
를 시군이 아닌 도 주관으로 변경해 운
영하고 있다.

각 분야 10년 경력 이상의 외부 전문
가로 강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시연 강의 평가·면접 등 강화한
절차를 거쳐 우수 민방위 강사진을 꾸
렸다.

이날 위촉한 민방위 강사는 다음달
12일부터 도내 15개 시군 교육 현장을
투입한다.

이들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2년 차 대원: 2만 6873명, 3~4년
차 대원: 2만 8303명, 5년 차 대원: 7만
6202명 등이다.

교육은 대원의 입무와 역할에 대한
기본 소양 학습과 응급처치, 화생방 등
생활안전 교육으로 구성, 재난과 민방
위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김 부지사는 “다양한 재난과 안보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방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
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 민방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
했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의료 공백’ 대비 총력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비상체계 가동… 도민 피해 최소화 도모

충남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
에서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 주
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집
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
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보건의
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
상 진료 대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태호
지사가 본부장을, 김기영 행정부
지사가 차장을 맡고 차지안전실장
과 복지보건국장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각각 맡았다.

실무반은 상황관리 및 수습총괄

반, 상황관리지원반, 비상진료관
리반, 구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사
회질서유지반, 협업지원반 등 7개
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추진 및 지원 △응급 이송 협조체
계 지원 △관계기관과 대응 공조
체계 가동 △도민 홍보·안내 등
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먼저 도
내 4개 의료원을 포함한 16개 응급
의료기관 운영을 보강해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
의료기관 경찰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파
악해 응급환자 분산 이송에 나서

고 있다.

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
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군 누리집과 120콜센터를 통해
비상 진료 기관 등 문 여는 병원도
안내하고 있다.

비상 진료 기관 현황은 도·시
군 누리집과 120콜센터 외에 응급
의료포털(www.e-gen.or.kr), 모바
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는 개원의 중심 동향
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별 의료기
관집단 허진 참여 등 상황 악화 시
4개 의료원 및 시군 보건소의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필
수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대응방 방침이다.

이 국장은 “도·시군 누리집과
콜센터 등을 활용해 문 여는 병원
을 적극 안내하여 도민 불편을 최
소화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선 현
장점검을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각 시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여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26일 기준 도
내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원의
300명 중 220명(7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29명(76%)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산불 대응을 위한 지침서 홍성군 ‘산불 백서’ 발간

지난해 4월 발생한 서부면 대형산불 발생 등 기록

홍성군이 ‘홍성군 산불 피해
극복 이야기’를 담은 홍성군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부터 3일간 서
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충남 역대 최대 규모로, 1,337㏊
산림이 소실되고 53세대 91명
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홍
성군은 향후 산불 및 재난 대응
을 위한 지침서인 ‘산불 백서’
를 발간했다.

군에 따르면 서부면 대형산
불 발생 후, 초기부터 정부
와 충남도, 산림청, 소방청 등 산
불 대응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산불 진화에 종력을 기울인 결과,
인명피해를 제로화할 수 있
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산불 백
서가 향후 산불발생 등 재난발
생 시 매뉴얼로 활용되어 산불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민원서식 작성예시 정보무늬(QR코드)’ 안내 서비스 제공

예산군, 전자정부 시대에 빨 및 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총력

예산군은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
는 10종의 민원 서식 작성성을 돋는
정보무늬(QR코드)를 제작해 편리
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성예시 정보 무늬(QR코드)는
△가족관계 서식 4종(출생신고, △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
통합민원 서식 2종(주민등록 등조
본 교부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위
임장) △자동차 민원 서식 2종(자
동차 등록 이전, 자동차 등록증 재
발급 신청) △여권 민원 서식 2종(여
권 발급 신청, 여권 법정 대리
인 동의서) 등 총 10종으로 제작됐다.

군은 민원인이 직접 정보 무늬

(QR코드)를 활용해 대기시간을 줄
이고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
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항후 군청 누리집 및 각 민
원실에 정보 무늬(QR코드)를 비치
해 더 많은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
게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 정
부 시대에 빨 및 충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민
맞춤형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3·1절에 태극기 달고 세종시티앱에서 소통해요”

내달 5일까지 태극기 달기 캠페인…참여자 300명 포인트 적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시민 소
통과 시정 참여 수단인 ‘세종시티
앱’을 통해 내달 5일까지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6일 정
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국경일에 세종시가 태극
기 물결로 기록 쌓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된다.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누리소통망(SNS)에 태극
기 달기 운동을 홍보한 인증글 또
는 우리 집에 태극기 달기 실천 인
증 게시물을 세종시티앱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세종시티
포인트 2,000점이 적립된다.

세종시티앱은 구글플레이스
토어(앱스토어)에서 세종시티앱
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 가능하고 캠페인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세종시티앱 내 ‘시
민 정책 소통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은 “태극
기를 걸고 인증하는 것을 넘어 우
리가 사는 이곳 세종시가 나라사
랑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함께 나
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며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세종시티
포인트 2,000점이 적립된다.

세종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이
내달 4일 문을 연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는 이달 농기계임대사
업소 북부 분점을 전의면 사무
소 내에 신축 완료하고 행정 절
차를 마무리해 내달 4일부터 정
식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북부 분점은 지난해 농촌진
흥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신
축되었으며 농기계 보관 창고, 사
무실, 민원실 등 시설을 갖췄다.

농업기술센터는 3월 본격적
인 영농철에 대비한 관리기 등
20여종 40여 대의 임대 장비를
비치하고 운영 인력 2명을 배치
해 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도 국비 10억 원을

세종시, 북부지역 정주여건 개선 설문조사 실시

“효과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산
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전
의·전동·소정면) 근로자와
기업주를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북부권 산
업단지 11개소를 중심으로 설
문지 2종(근로자용, 기업주용)
을 활용해 서면으로 이달 20일
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설문조사 주요 항목은 산업
단지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거, 교통, 문화, 복지,
여가시설 등 근로자가 생각하
는 산업단지 주변의 생활여건
수준 평가, 기주지 이전 의향 등
을 조사할 예정이다.

기업주에게는 기업현황, 전
경화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세종시 북부권의 정주여
건 개선하고자 한다.”며 “효과
성 높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 여려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예당호 전망대로 ‘서부내륙권 관광중심지’ 우뚝

예산군, 70m 위에서 커피 즐기며 예당호 한눈에 조망 가능

예산군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예당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예당호 전망대 건립 사
업을 7월 개장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응봉면
후사리 산 73 일원에 총 사업비
3329억원을 투자해 13만209㎡ 규
모로 능동 체험 활동을 통한 치유
와 휴양을 테마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을 추진 중
이다.

또 군은 예당 관광지 관광 콘텐
츠 고도화를 위해 △예당호 어린
이 모험 시설 설치 △예당호 느린
호수길 테마별 코스 개발 △예당

우리/동/네

“3.1절에 뜻깊은 가족여행 떠나요”

독립기념관, 충남 보훈관 등 전시·교육·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천안서북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위한

2024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경부관원태오)는 2월 26일 1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하였다.

발대식 행사는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장 수여, 활동 시 근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류와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진행됐다.

아동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하굣길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평소 봉사에 열의가 있는 은퇴한 노인 전문인력 등을 선발한 후 학교 주변에 배치하는 친안 보조 인력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천안서북경찰서에 올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64명은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돼 천안시 서북구 8개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의 39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3월 4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 지도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천안봉사회

천안시복지재단에 백미 후원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천안봉사회(회장 김혁중)는 27일 시장실에서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대를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

천안봉사회는 1992년에 설립돼 7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혁중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운형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천안봉사회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 이웃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박상돈 시장 ‘아시아축제도시 콘퍼런스’ 참석

천안흥타령축제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 수상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흥타령 축제의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 수상을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린다.

교育 프로그램으로는 ‘꼬리에 꼬리는 부는 3.1운동, 천안에 다니 라디’를 주제로 기족 대상 체험형 답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천안 유관순 생가와 우아한 독립만세운동 기념 공원, 독립기념관 3전시관 등을 찾아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 한다. 또한, 흥성에 위치한 충남 보

에는 ‘보훈의 숲’과 ‘보훈기족공원’ 등 실외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실외 전시로는 ‘시간의 터널’, ‘보훈의 분수’, ‘파빌리온’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조형물과 ‘풍속의자’, ‘상생큐브’, ‘숨결큐브’ 등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식민 지배를 이겨내고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저력을 자부심을 담고 있는 충남에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날의 힘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승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천안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달

천안시는 제105주년 3·1절을 앞두고 27일 독립유공자 유족 기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고 이장수 애국지사의 유족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31개 읍면동장은 천안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유족 76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헌에 대한 보답과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업적 성향과 유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확대하고 첨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

박 시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2024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사)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최하는 ‘2024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 도시 콘퍼런스’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축제 관련 콘퍼런스로 한국을 비롯해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10여 국가의 축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박상돈 시장은 오는 28일(현지 시간) 천안흥타령축제가 ‘2024 아시아 댄싱 페스티벌(Asian

페스티벌)

</

치매·우울 고위험군 조기발견 전수조사 나서

공주시, 65세 이상 2년에 걸쳐 3만 500명 무료 검사·관리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치매 및 우울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주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9.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인구수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치매·우울감 선별검사 조기검진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65세 이상 시민 3만 500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 전문인력 등 59명을 투입해 치매·우울감 선별검사를 활용, 마을 경로당 및 대상 가구로 직접 찾아가 1대 1로 대면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치매진단자에 대해서는 검사비·치료관리비·조호물품지원, 인식표발급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치매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활동프로그램도



함께 연계 운영 할 계획이다.

우울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대상자별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 연계,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5~10%

말 2200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092명으로 2년 만에 892명이 증가한 상태다.

우울 고위험군 역시 2021년 말 664명에서 2023년 말 736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5~10%

정도는 완치될 수도 있으며,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는 치매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5006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진단을 실시해 치매환자 509명을 발굴·지원했으며, 우울감 선별검사를 7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우울감 고위험군 736명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최원철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 및 우울감을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치매환자 및 우울 위험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와 우울 고위험군을 줄여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농공단지 방문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 직접 격려

이완섭 서산시장이 27일 관내 자동차 부품, 시트 제작 중소기업인 마성산업㈜과 주제진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서산시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과 함께 발전 할 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 시장은 수석농공단지 내 근로자 식당을 찾아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연면 서산테크노밸리 내 자동차 변속 핵심 부품 제작 기업인 마성산업㈜은 2014년 서산에 3만 1186m² 부지에 1만 3723m² 규모 공장을 신축 후 2020년 6912m²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부품을 생산하는 우랑 기업이다.

수석농공단지 내 위치한 주제진은

2003년 3.325m² 부지에 1.801m² 규모 공장을 신축 후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모닝, 레이 등 동회오토㈜ 전 차종의 시트를 제작, 납품하는 유망 기업으로 관내 공장 신설을 겸토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두 기업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균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자동차전문(医천농공)단지 등에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76개의 기업이 입주해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를 이루고 있으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국내 최장 차량 직선 주행 시험로가 위치해 자동차 산업의 입지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중기중앙회 제62회 정기총회 열려

중처법 오프닝 영상, 中企·소상공인의 뜨거운 관심 담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KB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회는 지난해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영상 보고와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임여금 청분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안」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전력기기사업조합, 대전세종 충남식물보호제판매업조합, 시흥유통진흥사업조합 등 3개 우수조합에 장관 표창을 친수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62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중앙회와 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중소기업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뜨거운 관심을 담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족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회 국회의 제발 정치가 경제를 망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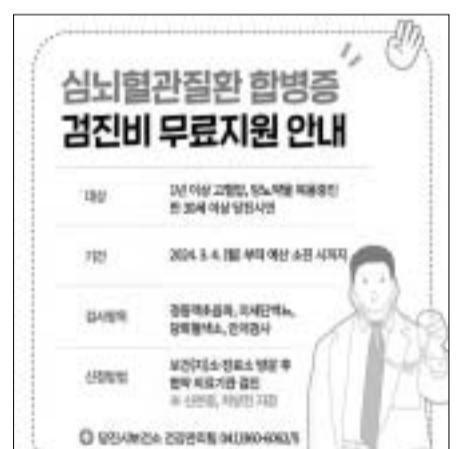
30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 무료

당진시보건소가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인 30세 이상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한다.

검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체방전 등을 소지해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를 방문해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관내 협약의료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경동맥 초음파 ▲미세 단백뇨 ▲당화혈색소 ▲안저검사 4가지로, 협약의료기관은 내과 7개소(당진성모병원, 열린내과병원, 협덕아산병원, 당진 좋은내과의원, 안과 5개소(밝은안과의원, 서울내과의원, 푸른내과의원, 현대의원), 안과 5개소(밝은안과의원, 서울안과의원, 소망안과의원, 우리안과의원, 이안과의원))이다.

당진시보건소는 심뇌혈관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상 연령



을 30세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상 소견을 발견한 대상자는 건강 위험군이 되지 않도록 병·의원과 보건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최최근수기자

배재대 간호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졸업생 70명 전원 합격…응급의료 대응 가능한 간호인력 양성

배재대학교(총장 김숙) 간호학과가 최근 치러진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70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배재대 간호학과는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양영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모의고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전념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국가고시 모의고사를 치러 시험감각을 가다듬도록 했다.

배재대 간호학과는 300명상 초과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공공 의료기관 등에 기관과 실습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협력해 서울 아산병원, 바른생 각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등과 취업관련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응급환자간호, 감염관리, 호스피스 등 각종 사안의 이해를 도왔다.

배재대 간호학과는 전용강의실, 로이 학습실, 나이팅게일 학습실, 웨슨 학습실 등 14개 강의실 및 실습실을 보유해 보건의료 현장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보이고 있다. 심폐소생 실습이 가능한 성인·소아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응급환자 대응능력도 배가할 수 있다.

한편 배재대 간호학과는 2011학년도에 제1회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21학년도에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을 개설하며 간호학 교육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김정환기자

충남농기원 표고 원목재배 종균 접종 서둘러야

“다음달 말까지 접종 마쳐야 유해균 발생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표고 원목재배 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종균 접종 적정 시기라고 밝히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접종을 마쳐 줄 것을 강조했다.

오염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우스 내에서 원목 접종 시 미리 하우스 내로

공기 중 유해균의 밀도가 낮아 오염 우려가 적지만, 4월부터는 기온이 상승해 유해균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돼 오염률이 상승한다.

고조언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주민설명회 열려

마트팜 단지(2.8ha)의 올해 완공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면밀한 주장을 당부했다.

농업 기술센터는 1차로 2024년 말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청양군 벽천리 일원 2.8ha 규모의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2ha(7동 내외)를 신축할 계획이다.

마트팜 단지(2.8ha)의 올해 완공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면밀한 주장을 당부했다.

농업 기술센터는 1차로 2024년 말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청양군 벽천리 일원 2.8ha 규모의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2ha(7동 내외)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사업 공모를 통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원에 단지 10ha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협력 지구 조성을 위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윤우 소장은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은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서 구멍에 접종하면 되며, 성형 판에서 한꺼번에 종균을 뽑아내 쓰거나 성형 판에서 꺼낸 성형 종균을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바로 사용해야 한다.

박혜진 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종균 접종 작업 전에 작업장과 주변을 소독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라면서 “성형 종균이 빛빛에 노출돼 건조되지 않도록 작업은 그늘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조언했다.

김정환기자

홍성군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최대 40만원 지원

무분별한 번식 방지·개체수 조절·유기견 발생 예방

홍성군은 오는 3월부터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방지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의 마당 등 실외에 끌어놓거나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사육견이며, 푸들, 말티즈, 치와와 등 소형 반려견은 제외된다. 단, 반려견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비는 암컷은 최대 40만원, 수컷은 20만원, 가구당 최대 2마리 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미리 당 1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지원대상이 되며 자부담 비용이 면제된다.”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읍·면사

무 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5개소)과 개별적으로 일정 협의 후 중성화 수술을 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 유기견 발생을 예방과 개체수 조절 등 반려인과 반려견 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동정

우호교류 협약



오성환 당진시장
=28일 오전 9시,
7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
에 참석, 오전 11
시, 3층 해나루 힐에서 서울시 강남
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준공식



가세로 태안군수
=28일 오전 11시
태안읍 인평리에
서 열리는 '인평 1
리 마을회관 준공
식'에 참석.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
=28일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열리
는 자연자유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
역 보고회에 참
석.

태안군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실시
관내 고물상과 협력해 노인 현황파악

태안군이 내달 말까지 관내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열악한 균무환경에 놓인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해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초부터 시작됐다.

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하고 관내 고물상 6개소와 협력해 정보를 확보한 뒤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정신 건강 상태 ▲주거환경 ▲소득 수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1 면담을 통해 나이, 소득수준, 근로능력, 폐지수집 지속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맞춤형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고 공적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꿀벌응애류 방제 당부

폐죽음 예방 위한 적기 방제 당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월동 꿀벌 폐죽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응애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꿀벌응애류는 애벌레와 성충, 벌데기에 직접 피해를 주고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옮기며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응애류가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면 체중감소, 세력 저하 등 정상적인 밥육이 어렵고 채밀량은 떨어뜨리며, 급성별마비증이나 날개불구비이어스감염증 등 바이러스 질병을 옮기는 걸쳤거리 기생충이다.

응애류를 방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번데기가 없는 1~2월 봄철 시작기, 6~7월 분봉기, 10~11월 월동 산란 종료기이다.

응애류 방제법은 개미산, 쿠마포스 등 약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1회 총 3회 방제해 밀도를 완전 방제 수준 까지 낮게 관리해야 5~6월 아카시아꽃이나 시기 응에 번식으로 인한 꿀벌 폐죽음을 막을 수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진지구 친수연안 정비사업 마무리

당진시, 한진포구에서 고대근린공원까지 산책로 정비 완료

당진시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에 따라 '한진지구 친수연안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당진시는 19년 12월에 1단계 사업(해안산책로 연장 215m)을 완료하고 지난 23년 12월에 2단계 사업(해안산책로 연장 526m)을 완료했으며, 한진포구에서부터 고대근린공원까지 총연장 741m에 이르는 이번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했다.

상반기 중에 남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아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준공 완료



태안군 공직자들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기탁

가세로군수, 26일 서천군 찾아 성금 1021만 원 전달



충남 태안군 공직자들이 지난달 화재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태안군은 지난 26일 가세로군수가 서천군을 방문, 김기웅 군수를 만나 성금 1021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 화재가 발생해 총 292개 점포 중 수산동과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됐다. 서천군은 화재 발생으로 잠정 폐쇄했던 5인장을 14일 만인 지난 5일 임시 개장하는 등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19일 까지 진행된 이번 성금 모금에는 가군수를 포함한 태안군 공직자 671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금

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시장 상인들의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며 "성금이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서천특화시장이 조속히 제 모습을 되찾길 6만여 태안군민 모두와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 공직자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과 부여군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매년 농촌 지역을 찾아 일손돕기에 나서는 등 꾸준한 봉사를 통해 주민 고통 분담에 앞장서며 호평을 받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도고면 신유2리 경로당 개소식 열려



아산시 도고면 신유2리에 새 경로당이 문을 열었다. 이날 신유2리

경로당 개소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오지석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 오안영 도의원을 비롯해 마을 경로당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신유2리는 2021년 3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마을이 신설된 지역으로,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마을이 마련한 부지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115.83㎡ 규모 건물을 신축했다. 또, 에어컨·냉장고 등 9백만 원 상당의 경로당 필수 비품, 운행비·냉난방비 등 419만 원을 지원해 경로당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지방세 환급금 신청 카톡 채널 개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이전에는 전화 또는 방문, 팩스로 지방세 환급신청을 했지만,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줄

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다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2024년 2월 현재 미환급금은 1,269건 3,394만 원이다.

카카오톡 채널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에 있는 정보 무늬(QR코드)

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청양군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친구 추가 후 인내하는 대로 환급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군은 카카오 알림톡 납부 고지

서비스를 비롯해 개별주택가격 알림, 취득세 감면 안내, 지방세 환급금 알림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군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청년수당 신청자 접수

3월 4일부터 1988년생·1998년생...1인당 60만 원 상품권 지급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1998년생)와 35세(1988년생) 청년으로 지급액은 1인당 6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상반기(4월 15일 예정) 30만 원과 하반기(10월 15일 예

정) 30만 원을 모바일 청양시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거주 요건은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빙울 수 있다.

군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도 받는다.

군이 지난 2022년 기초단체 최초로 시행한 청년수당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56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93.2% 수혜자가 사업이 지속을 희망했다.

군은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 취업 지원 수당,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청업 공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호 규모의 공유 주택(2025년 예정)과 청년 청업 복합 공간(2026년 예정)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이 신청 접수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아산시 주간 간부회의 열려

박시장, '시정연계 국비확보 사업, 추가발굴' 강조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분석해 시정과 연계한 도전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일일이 점검한 뒤 보완 사항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올해 우리의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정부의 예산총소지에 맞춰, 지난해 1조 원보다 하향한 9,128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그럼에도 각 부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더 찾아서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서별로 들여다보면, 시정과 관련 있는 정부의 사업을 분석하고 국비를 보전받기 위해 다양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반면 이런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한 부서도 있다"고 녹려하며,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추가로 발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중요성을 주시시켰다.

또 텅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도 부서별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LH가 실시설계를 주도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기계적인 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산 실정에 맞는 정의적인 변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서가 협조해 최상위 신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정의적인 주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양운전역 앞 족욕 시설의 활성화 대책도 언급하며, "방치돼온 시설을 365일 가동하도록 살펴냈는데, 안내 현판이나 예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신발과 양말을 벗을 수 있는 공간과 비가림 시설, 물을 닦을 수 있는 화용 타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거리재단, 학교급식 직영 준비 만전 ▲시청 직원 인원 조정 및 조직진단 협조 ▲외암민속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건설 등 차없는 거리 계획 수립 ▲도로파손 전수조사 및 보수 조치 ▲지역 레미콘업체 담합 단속 ▲시 주관 행사,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 유지 등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예방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파쇄지원단은 안전교육을 실시 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3월과 11~12월에 집중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파쇄지원단은 당진시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읍·면·동별 4인 1조로 구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해 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대상 농가는 산림이 인접하고 자가 파쇄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또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밭 농업 영농부산물(고춧대, 껌, 잣가지 등)에 한해 파쇄 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파쇄기와 트럭 진입이 가능한 농경지에 부산물을 쌓아두면 된다. 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쇄저울질(고춧대에 섞여 있는 비닐, 노끈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지원

부여군, 스마트팜 육성·미래성장산업 도약기반 확충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4년 중소원예농가 기족농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시설채소·화훼(과수 제외)를 재배하는 중소규모 농업인(농가소득 60백만 원 미만, 시설원에 경작 규모 1ha이하)이며, 개소당 0.3㏊, 스마트팜 신축(총사업비 4억 원) 또는 리모델링(총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누리집 공고 확인 및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830-2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은 지역농업의 핵심적 생산역량을 갖춘 중소규모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하여 부여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도약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여=김성구기자



계룡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나서

이응우 시장,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현신에 감사의 뜻 전해

이응우 계룡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26일 국군회복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다.

일제침략기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의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마련된 이번 위문은 ▲유봉진, 조인애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80세 유제중 님▲노원섭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79세 노용시 님▲박희남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90세 박상배 님▲이창순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87세 이필애 님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기에 현재 세대가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항상 그 공훈과 현신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기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에는 모두 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유족으로 등록돼 있으며, 시는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지원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계룡=김성구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주민 목소리’ 듣는다

서천군, 기금사업 발굴 위한 ‘내 고향스케치북’ 운영

서천군이 내달 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를 위한 ‘내 고향스케치북’을 운영한다.

‘내 고향스케치북’이란 군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자 메모지에 내용을 써서 게시판에 붙이는 형식으로 본청 로비 1층에 설치됐다.

‘내 고향스케치북’은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군은 사업성 등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맞춤형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연령층이 공감하고 참신한 기금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목표액 7700만원을 훌쩍 넘은 1억 8000만원을 모금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동정

읍면동장회의



최원철 공주시장= 28일 오후 4시 공주시자원봉사회관에서 열리는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

대학생 단기인턴 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 = 28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2024년 동계 대학생 단기인턴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30분 종회의실에서 2024 보령시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28일 오전 8시 40분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오전 10시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제52회 충남도지사기 역전 경주대회 출정식 참석, 오후 2시 유계1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유계1리 마을학교 개강식 참석, 오후 3시 광주군에서 3.1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오후 4시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참석.

순방 일정 수행



박병인 금산군수=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에서 순방 일정을 수행.

3.1절 맞이 한국 독립운동사 사진전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



보령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에서 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청년들의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한국 독립운동사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독립기념관의 혁신적 시장을 활용하여, 한글의 복제본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21점의 역사 기록들을 전시하여 보령시 청년 및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획됐다.

전시 내용은 한국의 복제본, 안중근 의사의 복제본,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이 있으며, 사진별 역사적 사건과 사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적혀 있어 관람객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전시회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시민이면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영천로 4길 21, 3층)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 030-8665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열 새마을운동체장은 “3.1절 맞이 전시회를 통해서 독립운동가의 혁신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보령시민에게 나라 사랑 정신 힘양과 역사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시, 천수만 자전거길 봄날 자전거 여행에 ‘최적’

전국 5곳 중 충남서 유일하게 선정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이 생태학적 가치에 더해 봄날 관광명소로서 그 이름을 높였다.

27일 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3월 추천 가볼 만한 곳 중 ‘봄날 자전거 여행’ 테마에서 ‘서산 천수만 자전거길’이 전국 5곳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천수만 자전거길은 서산 A·B 지구 방조제를 품은 서해와 활활한 농경지 사이로 탁 트인 시원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 자전거 여행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특히 바다를 앓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며 곳곳마다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산 = 김정한기자

금산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6개월간격 최대 4년 560만원 지급

금산군은 올해 관내 대학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한 대학생의 정착을 돋구고자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흥행에 나서고 있다.

이 지원금은 기준 3년 최대 220만 원에서 올해 4년 최대 560만 원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전입 지원 기간에 따라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과

1년 경과 시 각각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6개월마다 70만 원을 최대 6번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거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금산에 전입 신고한 관내 대학

전입대학생으로 전입 유지 6개월

마다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

터에 방문하거나 금산군청 담당자 이메일(bbarabara8@korea.kr)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재·휴학 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 후 군에 전입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전입지원금 5만 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금산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청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 ☎ 041-750-278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생은 생활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장학금

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며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건강한 기운과 함께하는 활기찬 학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우기 전 수해 하천 준설 및 제방 복구 완료

6월까지 하천 수해복구사업 246개소 완료 예정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지난해 여름 폭우 피해가 발생한 관내 하천 복구사업을 우기 전 완료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444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69억원 등 총사업비 534억원을 투입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184개소 등 246개소에 대한 제방복구 및 하상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상태로 다음 달 사업에 본격 착공해 우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천 현장점검을 통해 유수 흐름에 방해 및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은 준설이나 수목 제거 등을 시행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만수 건설과장은 “수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 수방 대책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태풍, 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공주 = 정상범 기자

금산군,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공동사업 논의 및 사무국 인계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



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는 지난 2002년 발족해 매년 관광상품 개발, 관광 박람회 공동참가, 공동 홍보마케팅, 국제 교류 등이다.

또한 사무국 인계도 확인했다. 사무국은 2년마다 윤번제로 정해지며 금산군에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부여군에서 사무국을 맡는다.

이외에도 협의회 소속 지자체 간 업무협약 및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대전엑스포아카이어움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5개 지자체는 지역 내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와 대전엑스포아카이어움은 시설 입장료 할인, 상호 적극적인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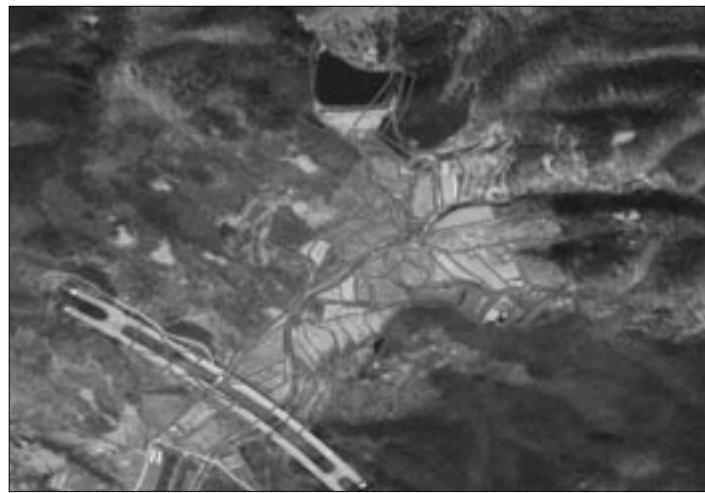
박병인 금산군수는 “백제문화관

광벨트협의회는 5개 지역의 개성이 드러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서로의 관광 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정안면 어물1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

“소유권 행사 불편 사항 해소 · 소유자 재산권 보호 기여”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해부터 실시해 온 정안면 어물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

우/리/동/네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보령시, 정주여건 개선 및 체류활성화

… 등록·체류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

보령시는 지난 26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구기선)를 열어 2024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밝혔다.

인구정책위원회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계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실시 및 보령에서 한달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정주여건 개선 및 체류활성화’로 등록·체류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총 7개 분야 58개 과제 958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민관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등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7개 과제 8억 8천만 원 △아이하나 더 낳고 싶은 도시 만들기 15개 과제 325억 원 △전 생애 맞춤 교육환경 조성 6개 과제 125억 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착지원 11개 과제 28억 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4개 과제 180억 원 △정주하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11개 과제 290억 원 △스마트 공간 창출 생활·관제·체류 인구 확대 4개 과제 1억 5천만 원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분야별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지문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기선 위원장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시정 모든 분야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서산시 간담회 개최

충남 서산시가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시는 26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 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등 23명이 참석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서산노인복지센터, 엘리자기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119명이 증가한 2170명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등에게 전담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원사 9명을 증원한 총 155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는 경로당 및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에 발맞춰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이·통장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시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은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 김정한기자

개최해 조정금을 심의 결정,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이인면 복룡1지구, 이곡1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 = 정상범 기자

KT&G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 ‘다양성과 포용성(D&I)’ 확산 아이디어 등 발표

‘조직문화 혁신’ 위한 상상주니어보드 경영제언

KT&G 사장 백복인의 차세대 리더 협의체 ‘상상주니어보드’가 경영진에게 직접 경영제언을 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미팅은 상상주니어보드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 발표와 현장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D&I, Diversity and Inclusion)’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안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0개월 간 상상주니어보드 3기는 ‘글로벌 티어(Global Top-Tier)’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공감대 강화 활동을 비롯해 ‘CEO 타운홀 미팅’, ‘신규 입사자 온보딩 콘



텐츠’, ‘분야별 우수 리더 선발’ 등 조직문화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

주정국 상상주니어보드 3기 의장은 “조직

문화 혁신은 멀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는 지난 2021년 5월, 기존의 조직문화 개선 기구인 ‘상상실현위원회’를 개편하여 2030 구성원 중심의 ‘상상주니어보드’ 1기를 출범했다. ‘상상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경영진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KT&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위라밸 실천 우수기업’과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통기업’에 선정됐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계속해서 재인증 받고 있다.

이정복기자



한별대, 디지털 새싹 운동성과 공유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2023년 하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디지털 새싹 운동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관한 체험과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충남교육청, [총]분히 [넓]다른 충남·전국 기능경기대회 만든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 인천체육관 강당에서 직업계고 전공심화동아리 지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기능경기대회의 필승과 안전을 다짐하는 지도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맛집도시 대전’

3대 30년 전통맛집 기자!

대전시는 3대 30년 전통 음식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책자와 이북(e-book) 발간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3대 30년 전통맛집’은 3대에 걸쳐 30년 이상 대전에서 자리를 지켜온 음식점으로, 대전시는 먹거리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음식점 30곳을 지정했다.

시는 ‘3대 30년 전통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별 대표메뉴를 대전의 대표 먹거리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ArC92xxxDYPUtE09CDORFw>)을 개설했다.

유튜브에서는 대전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해 온 전통 맛집만의 강점을 부각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영상으로 전통업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대전만의 특별한 음식을 어필해 ‘맛집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전형적인 음식점 홍보영상 형식에서 벗어나 유튜버를 섭외해 화제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김태선기자



한효진, 2024 효문화신문 외국인 명예기자 위촉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은 2월 27일 효문화신문 '효 Life' 외국인 명예기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충남아산FC, 현충사 찾아 ‘2024 시즌 출정식’ 가져 지난 26일, 현충사에서 충남아산FC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구단주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이준일 대표이사, 김현석 감독, 선수단과 구단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구 학하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이동 빨래 봉사 대전 유성구 학하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미연)는 27일 새마을 이동 빨래 봉사를 실시해 관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청양군, 3월 10일까지··· 군청 누리집 간편 신청 시스템

2기 탑클래스 학습지원 신청자 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3월 10일까지 2기 탑클래스 학습지원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난 26일 시작한 신청자 접수는 군청 누리집 간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학년도 기준 군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총 400명(초등 120명, 중등 140명, 고등 140명)을 선착순과 선발심사로 선정한다.

탑클래스 학습지원은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투자, 학생들에게 과목별 온라인 영상 강의와 1:1 온라인 상담(중·고생), 오프라인 서비스(입시, 진로, 진학 상담, 방학 특강 등)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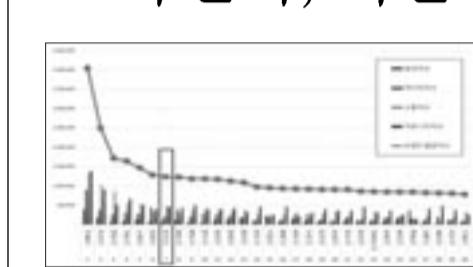
청양=정상범기자

KT&G 사장 백복인의 차세대 리더 협의체 ‘상상주니어보드’가 경영진에게 직접 경영제언을 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미팅은 상상주니어보드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 발표와 현장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D&I, Diversity and Inclusion)’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안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0개월 간 상상주니어보드 3기는 ‘글로벌 티어(Global Top-Tier)’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공감대 강화 활동을 비롯해 ‘CEO 타운홀 미팅’, ‘신규 입사자 온보딩 콘

아산시,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서 7위 차지



시브랜드 비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지수·미디어지수·소통지수·커뮤니티지수 등 분야별 지수를 합산해 도출한 것이다. 1~3위는 광역도시인 서울·부산·대전 시가 차지했다.

아산시는 인구 200만 이상 광역시는 물론 100만 이상 수도권 도시들을 제치고 10위권 내 기록한 상위권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40위권에 머물던 아산시는 2023년 4월, 8위로 급상승하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고, 2024년 1월 7위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평판 분석을 진행하면서 궂기버너스 연구원 거버넌스 분석을 포함해 도시브랜드 평판지수가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이번 순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대한민국 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중심도시로 떠오른 점, 아산시의 100년 밭전을 이끌 명품 신도시 조성 사업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진입한 점과 함께 GTX-C 노선에 아산이 포함되면서 ‘메가시티 서울’ 편입 호재를 꾹았다.

또 박경귀 시장의 고품격 문화예술 정책의 결과물인 ‘아산 시그니처 한복’이 설 연휴 KBS 1TV ‘열린음악회’ 무대에 올라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점, 갑진년 ‘아트밸리 아산’ 첫 공연으로 기획된 ‘2024년 신년음악회’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관객들까지 뮤지컬 예매 시작 5분 만에 1,300석 매진되면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도 상승세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는 브랜드 상승의 요인으로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건설하는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영상 촬영 및 편집은 영상 스튜디오에서!”

공주시 웽진도서관 ‘영상 제작공간 공유 서비스’ 운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시민들에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스튜디오 공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 장비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2종을 운영한

다.

영상스튜디오 공간 공유 서비스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이용자에게 촬영 및 편집 등 제작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웽진 도서관 내 영상스튜디오를 대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관을 원하는 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관할 수 있다.

다만, 영상 제작과 관련해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 이용자는 웽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영상스튜디오 활용 교육(상시 운영)’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영상 촬영 및 편집 방법을 배워 제작하는 ‘유튜브 속초 만들기(초등1~6학년)’와 북트레일러 형식으로 프로 그램 참여자에게 고른 책 소개 영상을 녹화하는 ‘인생책을 소개합니다!(고1~성인)’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www.gongjilubgo.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웽진도서관(041-840-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기 평생교육과장은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 공유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와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위한 교육 신청하세요!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소속 대전중장년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손경희)가 대전지역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수강생을 6일부터 모집한다.

‘생애 전환 지원’과 ‘일·활동 지원’으로 이뤄진 교육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과정별 15명~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특히, 전형적인 음식점 홍보영상 형식에서 벗어나 유튜버를 섭외해 화제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김태선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인생 2막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소통채널 구축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조폐가 산업이 되는 KOMSCO 2.0을 빛받침하기 위해 27일 대전 본사에서 노사(勞使) 대표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보수제도 개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회폐수요 감소에 대응해 전자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IT사업과 예술형

주화 준비 등 문화기부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보수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인사·보수제도 개선 TF는 근로시간, 휴게제도, 보수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해 합리적인 대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사의 제조업에서 ICT 기업 및 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노사는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폐가 산업이 되는 KOMSCO

2.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력해 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홍탁 위원장은 “변화에 민감하면서 자칫 복지, 환경, 인권 등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은 무엇인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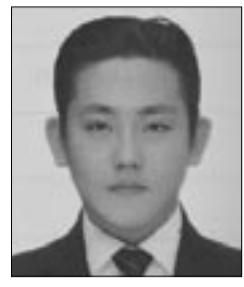
성창훈 사장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달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달 노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설맞이 진심가득 떡국 떡썰기 행사’와 이번 제도개선 TF에 이어 향후에도 노사협력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기고

105주년, 3·1 운동의 정신을 되돌아보며



권태규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정통성은 현대 대한민국의 기틀로 자리 잡아 국가 정체성의 가장 깊고 넓은 뿌리로 우리를 지향해 주고 있다.

국가 통치체제의 근간이라 할 현 법 전문의 첫 문단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3·1 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엿고 있다고 가리킨다.

그럼 올해로 105번째 기념일을 맞는 '3·1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단 한 곳에서, 단 한 번 족발되는 데서 그전에 아니라 그 고되고 괴谬했던 시대 상황에 굽복하지 않고 굳건히 여기에서 저기로, 오늘에서 내일로 생명력을 가진 채 꾸준하게 유통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 소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3·1절이 105번의 해를 넘기는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려온 보훈 정신의 교훈과 그 무게를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일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소재한 이곳 천안 지역에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과 관련된 사적지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과 '아우내 3·1 운동독립사적지'가 자리한다. 이곳엔 3·1 운동의 조석이자 헛불이라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일본 현병의 무력 진압에 무고하게 희생된 천안 지역 순국선열들을 기리고자 세워진 기념비를 비롯한 각종 사료와 조형물이 마련되어, 그날의 끄거운 정신을 근거리에서 되새길 수 있는 예우와 환대의 공간으로 우리 후손들을 맞이해주고 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1919년 3월 1일, 경성의 탑골공원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의 강렬한 진동은 그렇게 같은 해 4월 1일 음력 (설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부르짖던 '만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동의 강렬한 진동은 그에게 같은 해 4월 1일 음력 (설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부르짖던 '만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유관순 열사들이 외치던 자주독립의 목소리는 곧 대한민국의 암과 목소리가 되어 1700여 차례에 가까운 크고 작은 만세운동으로 널리 번복되었다고 추산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본받고 깨우칠 수 있는 보훈 정신은,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짖던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더불어 1700여 차례의 만세운동 과정에서 사상을 입거나 투옥된 수많은 지역 시민들과 순국선열들의 용기와 혼신의 자세를 가리키기도 할 것이다.

이번 105번째 3·1절은, 대한민국의 근간과 그 보훈 정신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승해야 할 '3·1 운동'의 정신을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깨울 수 있는 국경일이 됐으면 한다.

사설

논밭 두렁 태우기 이제는 그만

인 줄 알면서도 다음 경작을 위해 농작물 수확 후 간편하게 농지를 정리할 수 있어 논밭을 태운다고 알려졌다.

관계 당국이 감시를 한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겠다. 상식인데도 개의치 않는다면 강력 의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회개 발생 요인을 알면서도 행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쉽다. 이런 경우 산림보호법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적 조항에 해당돼 처벌을 면키 어렵다. 처벌이 무서워라기보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논밭 태우는 행위는 현지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거기에 많은 농민들은 불법

위기기구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무한 책임

지난 2014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10주기를 맞았다. 당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실로 북적였다. 세 모녀는 월세와 공과금 용으로 70만 원을 담은 봉투와 메모를 주인에게 남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과 책임감을 지키려 했던 세 모녀의 비극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이 세 모녀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이웃도, 주민센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택에 국가의 지원 밖에 있었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없어 위기기구인지 조차 몰랐던 것이다.

평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공공 부조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가와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짐과 실천을 약속했다. 그리고 복지 기초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송파 세 모녀 법이 시행됐다. 이는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누구라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신속한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후에도 생존의 위기 속에 죽음을 맞은 사례가 계속 나왔다. 지역과 구성원만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이나 연체되며 위기기구로 분류되지만 주민등록증과 실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기구를 제때 발굴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것 이헛수고가 된다.

하지만 복지 인력 부족으로 위기기구 발굴이 어렵고 발굴 이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이들 가운데 공공복지에 연계된 경우는 100명 중 7명꼴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위기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방증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가계소득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인심소득 제도가 눈길을 끈다. 위기기구 안전망 구축은 복지국가의 무한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산군-옥천군 공직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충남 예산군과 충북 옥천군이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인착과 지자체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향 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상호 지자체를 응원했다.

이번 기부는 예산군 총무과 및 옥천군 행정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 직원 4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박상복 예산군 총무과장은 "고향 사랑 기부제는 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므로 관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공직사회 내 고향 사랑 기부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공직자들은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충남 홍성·청양군 등 인접 지자체로부터 전남 담양군 등 상호 교류가 있는 지자체에 상호 기부하면서 기부금 모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인착과 기부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일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d-mail@harma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